

중국대륙 시리즈 제5편

연태시의 공공시설 화장실



글 홍하상

안 려

중국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 하나인 연태시에서 100여년 전의 화장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태시에서 100여년 전의 화장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태시에서 100여년 전의 화장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태시 복간성 박물관 내 정원

동북삼성의 관문인 연태시

연태시를 떠나는 날, 아침.

연태의 부두에 한 번 나가보았다.

재작년에 나는 이곳 부두에서 배를 타고 세시간을 달려 요녕성의 대련시에 간 일이 있었다.

오늘날의 연태시는 동북삼성의 관문이다.

즉 한국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옷을 사서 이곳 연태시의 도매상들에게 넘기면 그들은 그 옷들을 배편을 이용해서 요녕성의 대련항으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요녕성의 성도인 심양이나 흑룡강성의 장춘, 하얼빈이나 길림성의 연길 등으로 가고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태는 동북삼성의 관문이 되는 항구이다.

그래서인지 연태시에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한국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눈에 많이 뜨인다.

재작년에 비해 연태항은 많이 자유로워졌다.

공안원들의 숫자도 전보다는 훨씬 줄었고, 번뜩이는 눈초리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개혁개방이 이제는 궤도에 오르면서 그들도 개혁개방에 익숙해진 탓이리라.

전에 북경시의 공공건물에 가면 입구를 지키고 있던 공안원들이 그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관광객들에게



연태항티미널



연태항티미널의 세면대



연태항티미널의 소변기

중국의 공안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
자기들의 치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중국정부 당국은 고구려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한국의 학자들이 고구려를 연결시켜 과거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들도 매우 우호적이 되었다.

연태항같이 국가적 주요공공시설에는 공안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마련이고, 재작년에도 공안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불과 2년만에 공안원의 숫자는 현저히 줄었다.

연태항 청사안에 들어간다.

시설은 재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2층에 있는 화장실의 모습도 그대로다.

재작년에 이곳에서 용변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화장실 앞에 공안원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안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

자기들의 치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싫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수없으면 곧바로 연행하는 수가 있다.

연행당하면 필름은 물론 압수이고, 사진 촬영동기에서부터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등등 조사가 복잡해진다.

아는 사람들 중에도 여럿이 중국 공안에 연행되어 조사받았다는 얘길 들은 적도 있다.

특히 길림성과 같은 우리나라의 옛 고구려지역에 가서 고구려산성이나 고분 등을 수소문하면서 다니거나 그걸 촬영하다 걸리면 조사가 길어진다.

중국정부 당국은 고구려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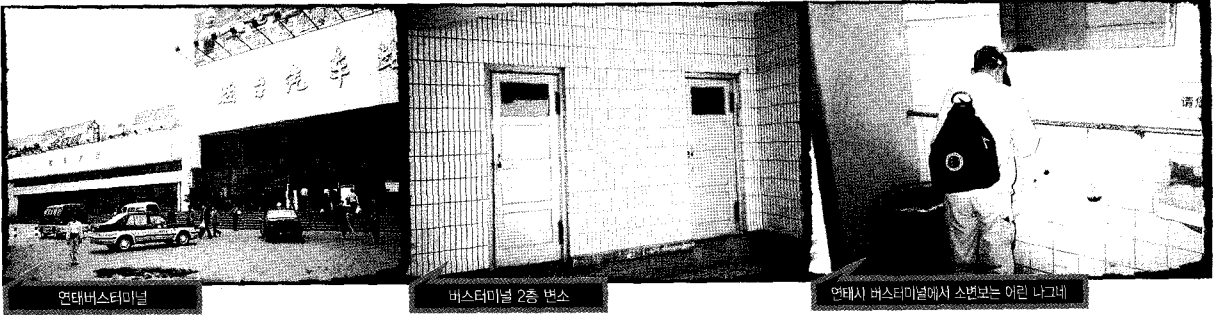
한국의 학자들이 고구려를 연결시켜 과거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 외에 자신들이 못사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한다.

화장실도 그렇다.

연태항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2년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옛 모습 그대로다.

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2층에 있다.
 놀랍게도 소변기 2개에 남녀표시가 되어있는 큰일(?)보는 곳이 각 1개밖에 없다.
 하루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화장실 시설치곤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여행객을 다 감당할 것인가.



연태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2층 변소

연태시 버스터미널에서 소변보는 이린 나그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중국인데도 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연태항은 국제항인데도 그렇다.
 소변을 보고 사진을 몇장 찍었다. 공안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시설은 황망그레하다.
 하지만 제작년에 비해 청소는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인다.
 시설은 형편없지만, 많이 깨끗해졌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번에는 연태버스터미널에 가보았다.
 연태버스터미널에는 산동성의 성도인 제남이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청도시로 가는 버스가 많다.
 대합실에 들어가니 재밌는 장사가 하나 눈에 띈다.
 중국돈 5마오(80원)를 받고 체중을 재어주는 장사이다.
 마침 중국 아가씨가 체중을 재고 있다.
 사진을 찰칵 찍었다.



중국 돈 5마오를 내고 체중을 재는 여인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가씨의 몸무게는 본인만 아는 비밀이다.
 플래시가 터지는 틈에 아가씨가 저울에서 내려와 왜 남의 비밀을 찍느냐고 눈을 흘기며 따진다.
 미안하다고 하는 수밖에 몇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필름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얼른 자리를 피했다.
 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2층에 있다.
 놀랍게도 소변기 2개에 남녀표시가 되어있는 큰일(?)보는 곳이 각 1개밖에 없다.
 하루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화장실 시설치곤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여행객을 다 감당할 것인가.
 장사꾼에게 물어보니 1층에서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연태시 복건성박물관 화장실 세면대

연태시 복건성박물관 화장실

가보니 제법 시설이 크고 현대식이지만, 이제 막 콘크리트를 쳐놓은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연태시의 '복건성 박물관'엘 갔다. 당나라 시대부터 홍콩 근처에 있는 복건성 상인들은 이곳 연태시에 까지 해로를 이용해 배를 타고 물건을 팔러왔었다. 중국에서는 광둥성 상인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복건성 장사꾼이다. 오늘날 동남아 화교의 99%는 바로 광둥성과 복건성 출신들이다. 그들이 동남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은 바로 그 화교들이다. 세계의 경제를 양분하면 유태인과 화교라는 말이 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태인과 화교가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다는 말이다. 동남아는 화교의 손아귀에 있다. 바로 그 복건성 사람들이 먼 옛날부터 청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킬로를 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장사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복건성 박물관은 쓸렁하다. 유물이랄 것도 없는 낡은 항아리 몇십개 갖다 놓고 박물관이라고 차려놓았다. 그나마도 안내인은 촬영불가란다. 때로 이 사람들은 문화재 같지도 않은 문화재조차도 마치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감추려고 한다. 좀 웃기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다. 복건성 박물관 화장실에 갔다. 낡은 나무 문짝, 그나마 내려다 보일만큼 낮은 화장실. 좀 일랑한 시설이지만 이게 아직까지의 중국의 모습이다. 이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800불.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 중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70년대 중반은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70년대 중반, 지방의 터미널이나 항구의 화장실 시설도 이와 비슷했다. 거대한 중국. 인구 2800만의 중경시에서부터 2000만의 남경, 1800만의 상해 등 무려 1051개의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중국. 북경이나 상해, 중경, 남경은 이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화장실 시설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변방의 연태시까지 화장실 시설이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나그네는 버스에 올랐다.